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_Power of Love that Opens brings a New Day

Reading

요한복음 20장 1절, 11 – 16절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Thinking

1. 요한복음 20장 11절 - 18절의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가 하신
말씀을 전함

마리아가 돌무덤에
찾아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 갈 것'을
말씀하심

()

()

()

()

2. 마리아가 돌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 엄청난 무게의 돌무덤, 주변 사람들의 팁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향하는 마리아의 사랑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참조_요1 4:18)
3.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을 가진 마리아에게 나타난 기적은 무엇인가요?(16절)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_Power of Love that Opens brings a New Day

Thinking

4.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초월적 사랑의 자세를 가진 마리아를 보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또한 마리아처럼 초월적 사랑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까요?

Praying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한 현실적인 고난과 시험들이 나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기 보다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_Power of Love that Opens brings a New Day

Reading

요한복음 20장 1절, 11 – 16절

1.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Thinking

1. 요한복음 20장 11절 - 18절의 내용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보세요.

성경말씀을 3번 읽고 사건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번호를 매겨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함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으며, 그가 하신
말씀을 전함

마리아가 돌무덤에
찾아가 흰 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나게 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며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 갈 것'을
말씀하심

(2)

(4)

(1)

(3)

2. 마리아가 돌무덤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는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 엄청난 무게의 돌무덤, 주변 사람들의 팁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향하는 마리아의 사랑에서 무엇을 느끼나요? (참조_요1 4:18)

첫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환경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요한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말씀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로마 병정도, 돌무덤도, 팁박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변함없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그가 살아계실 때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새날을 여는 사랑의 능력_Power of Love that Opens brings a New Day

Thinking

3.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초월적인 사랑을 가진 마리아에게 나타난 기적은 무엇인가요?(16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14절),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에 그가 동산지기인줄 알았습니다(15절).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합니다.

4.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초월적 사랑의 자세를 가진 마리아를 보며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또한 마리아처럼 초월적 사랑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까요?

자녀들과 함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초월적 사랑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결단해 봅시다.

Praying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19로 인한 현실적인 고난과 시험들이 나의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현실 앞에 있는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기 보다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